



## 우리시대의 희망

박 상 돈 국회의원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즈문 해를 아쉬워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다짐은 또 다른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난 1년의 기억을 뒤로 하고 새해를 맞아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은 어느 한쪽의 희망이 아닌 모두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은 너무도 숨 가쁜 일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로 나타난 4.15총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판결, 개혁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우리는 너무도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은 나만의 희망도, 또 너만의 희망도 아닌 우리 모두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현대사를 움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체험한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한국의 인구이동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세계적으로 가장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인구비율은 불과 한 세대 안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해체, 지역간 인구이동에 맞물려 변화해온 모습이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민들에게는 희망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할 희망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한, 어느 지역 하나라도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구체적으로 실현 될 수 있는 것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신행정수도의 이전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가 어느 한쪽의 희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신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를 충청권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현대사를 움직인 변화의 양식이 매우 불균형하게 진행되었고 또한 지금도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균형은 절망으로 지방인들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하고 있다가는 무기력하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혹독한 현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균형으로 인한 절망이 아닌 균형을 통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희망을 우리 충청인들이 앞장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만의 희망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는 충남지역이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시아 첨단 정보교류의 전진기지로써의 우리 충남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충남지역이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새로 맞이한 시간 위에 우리의 희망을 담아봅시다. 거대한 역사적 변혁 앞에 선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러한 희망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야할 길이라면 피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용기만이 우리가 가진 희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썩을 틈우듯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 우리 모두의 용기와 희망이 2005년 우리시대의 밀알로 거듭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하십시오.